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박희숙¹, 최동숙¹, 김효춘^{2*}

¹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²계명대학교 간호학과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Nursing Professionalism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Hee-Sook Park¹, Dong-Sook Choi¹, Hyo-Chun Kim^{2*}

¹Department of Nursing, Kyongbuk Science College

²College of Nursing graduate student,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경북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학생 1, 2, 3, 4학년 265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8년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실시하고,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은 간호전문직관과의 영향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태도성숙($\beta=.38$), 진로정체감($\beta=.17$), 진로준비행동($\beta=.14$)이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개효과인 진로준비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더불어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천적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관련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조적 관계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nursing professionalism related factors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265 students in the first, second, third, and fourth grades of nursing schools in the Gyeongbuk area.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7, 2018 to May 25, 2018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areer identit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have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relation to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attitude maturity ($\beta=.38$), career identity ($\beta=.17$),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eta=.14$)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was 19%.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methods to improv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enhance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follow-up research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which are concrete and practical actions related to nurse's careers, and how they affect other career-related variables.

Keywords :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Career Attitude Maturity

*Corresponding Author : Hyo-Chun Kim(Keimyung Univ.)

Tel: +82-10-9361-1125 email: khongcc@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5, 2019

Revised March 21, 2019

Accepted May 3, 2019

Published Ma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취업의 용이성과 직업의 안정성 등으로 인해 간호학 및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호사 이직률 평균은 19.7%로 나타나 간호대학 졸업 후 간호사의 이직률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는 대학 생활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되어질 만큼 사회는 변하고 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인력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사를 배출하는 간호학과와 인력이 증가되었다[3]. 급격히 변화되는 보건 의료 영역에서 의료 소비자의 질적인 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되고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1]. 그에 따라 예전에 비해 간호에 대한 직업영역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전문직관도 다르게 변화하리라 생각된다.

간호대학생들은 학교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및 간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4].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의사-간호사 및 의료관련 직원들과의 협력 등을 접하면서 전문적 간호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전략이 된다[5].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 강화 및 진로탐색을 위한 개인이 고민하는 시간이 적으며 이로 인한 진로준비 행동도 부족한 실정이다[6].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는 것만 봐도 간호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이는 간호직에 대한 바람직한 자아정체감의 혼동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7].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는 태도와 이를 해결하는 능력인 진로성숙이 확립되지 않아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 생활에 활력을 상실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8]. 간호대학생 본인의 진로에 대해 성숙한 태도와 의식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로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타 직업분야와 구분되는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9].

간호전문직관이란 전문직으로서 간호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관념 및 인상의 총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의식 견해라고 할 수 있다[10].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교 전공수업과 임상실습의 환경이나 내용에 따라 전공만족도,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정체감이 간호전문직관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다[6,11].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사로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바탕으로 간호학의 가치를 알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적 교육중재를 통해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고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및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간호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진로지도 방향 및 취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본 론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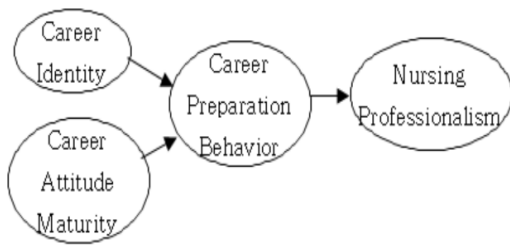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3.1.9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α) .05,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의 수를 12개로 설정하였을 때 표본 수가 184명인 것을 근거로, 탈락률과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270명을 설문 조사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5명을 제외한 총 26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신념 정도를 말하여 직업에 대한 목표, 관심 및 소질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12]. Kim과 Kim[12]이 개발한 진로정체감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3문항으로 정서, 인지, 행동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 확립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12]의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77이다.

2.3.2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성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취하는 행동이 자신이 속한 연령층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13]. Lee와 Han[13]이 개발한 진로태도성숙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47문항으로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 성숙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Han[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2이다.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적성을 확인하고 직업과 관련된 준비 등 직접적인 취업준비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개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는 실천적인 노력이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형태의 차원을 의미한다[14]. Kim[14]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6문항으로 정보수집행동, 도구준비행동, 목표달성행동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89이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동 과정에서나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인 견해이다[10]. Yeun 등[10]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9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의 속성, 간호의 독자성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Yeun 등[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93이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주요변수는 기술통계를,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aron & Kenny[15]가 제안한 3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과 비밀을 보장하고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면 연구 참여 전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숙지한 후 참여방법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의한 경우에 네이버 폼을 통한 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5~20분 정도이며,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57명(21.5%), 여학생 208명(71.5%)였으며, 학년은 1학년 75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3학년 66명(24.9%), 2학년 64명(24.2%), 4학년 60명(22.6%)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1세가 84명(31.7%)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66명(62.6%), 보통이 68명(25.7%), 불만족 31명(11.7%)를 차지하였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자발적 선택이 150명

(56.6%), 부모권유 66명(24.9%), 안정적인 직업이 49명(18.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좋음이 153명(57.7%), 보통이 107명(40.4%), 나쁨이 5명(1.9%)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경험은 있다가 161명(60.8%), 없다가 104명(39.2%)로 나타났다.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생각이 있다가 214명(80.8%), 없다가 51명(19.2%)을 차지하였다. 경제상태는 '중'이 190명(71.7%)로 가장 많았고, '하'는 54명(20.4%), '상'은 21명(7.9%)로 나타났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차이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는 학년, 지원동기, 임상실습경험, 졸업후 진로생각, 경제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4학년 2.62(0.54)점, 1학년 2.42(0.56)점, 3학년 2.39(0.60)점, 2학년 2.25(0.48)점으로, 사후분석결과 4학년이 2학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4.59$, $p<.004$). 지원동기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자발적선택 2.49(0.55)점, 안정적 직업 2.35(0.53)점, 부모권유 2.29(0.58)점으로, 사후분석 결과 대상자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42$, $p=.034$).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있는 경우가 2.49(0.58)점, 없는 경우가 2.30(0.50)점으로,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86$, $p=.005$). 졸업후 진로생각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있는 경우가 2.49(0.55)점, 없는 경우가 2.13(0.54)점으로, 졸업후 진로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4.19$, $p<.001$). 경제상태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평균은 상이 2.88(0.69)점, 중이 2.40(0.51)점, 하가 2.29(0.61)점으로, 사후분석결과 경제상태가 상인 경우가 중, 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8.90$, $p<.001$).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전공만족도, 지원동기, 대인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평균은 만족이 3.94(0.54)점, 불만족이 3.62(0.60)점, 보통이 3.57(0.52)점으로, 사후분석결과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경우가 불만족, 보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13.66$, $p<.001$). 지원동기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평균은 자발적선택 3.87(0.54)점, 안정적직업 3.82(0.61)점, 부모권유 3.66(0.57)점으로, 사후분석 결과 대상자 간 차이는 없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65)

Characteristics	Category	N(%)
Gender	Men	57(21.5)
	Women	208(71.5)
Grade	1st	75(28.3)
	2nd	64(24.2)
	3rd	66(24.9)
	4th	60(22.6)
Age	18-19	69(26.0)
	20-21	84(31.7)
	22-23	58(21.9)
	24-25	23(8.7)
	≥26	31(11.7)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66(62.6)
	Moderate	68(25.7)
	Dissatisfaction	31(11.7)
Motivation of choosing	Voluntary choice	150(56.6)
	Parent invitation	66(24.9)
	Stable job	49(18.5)
Human relationship	Good	153(57.7)
	Moderate	107(40.4)
	Bad	5(1.9)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161(60.8)
	No	104(39.2)
Career thinking after graduation	Yes	214(80.8)
	No	51(19.2)
Economic status	High	21(7.9)
	Middle	190(71.7)
	Low	54(20.4)

Table 2.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65)

Characteristics	Categor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F	ρ Scheffe	M(SD)	t/ F	ρ Scheffe
Gender	Men	2.33(0.61)	-1.35	.179	3.85(0.61)	0.59	.558
	Women	2.44(0.54)			3.80(0.55)		
Grade	1st ^a	2.42(0.56)	4.59	.004 d)b	3.86(0.54)	1.93	.125
	2nd ^b	2.25(0.48)			3.78(0.59)		
	3rd ^c	2.39(0.60)			3.91(0.57)		
	4th ^d	2.62(0.54)			3.68(0.54)		
Age	18-19	2.38(0.57)	1.78	.133	3.89(0.52)	0.65	.628
	20-21	2.42(0.55)			3.78(0.59)		
	22-23	2.56(0.50)			3.79(0.53)		
	24-25	2.39(0.76)			3.71(0.69)		
	≥26	2.24(0.47)			3.84(0.56)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2.45(0.57)	1.52	.221	3.94(0.54)	13.66	<.001 a)b.c
	Moderate ^b	2.42(0.48)			3.57(0.52)		
	Dissatisfaction ^c	2.26(0.67)			3.62(0.60)		
Motivation of choosing	Voluntary choice	2.49(0.55)	3.42	.034	3.87(0.54)	3.38	.036
	Parent invitation	2.29(0.58)			3.66(0.57)		
	Stable job	2.35(0.53)			3.82(0.61)		
Human relationship	Good	2.46(0.58)	0.89	.411	3.90(0.57)	4.47	.012
	Moderate	2.36(0.53)			3.70(0.54)		
	Bad	2.38(0.55)			3.59(0.32)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2.49(0.58)	2.86	.005	3.79(0.57)	-0.77	.445
	No	2.30(0.50)			3.84(0.57)		
Career thinking after graduation	Yes	2.49(0.55)	4.19	<.001	3.84(0.57)	1.88	.062
	No	2.13(0.54)			3.68(0.53)		
Economic status	High	2.88(0.69)	8.90	<.001 a)b.c	4.00(0.64)	1.51	.223
	Middle	2.40(0.51)			3.81(0.55)		
	Low	2.29(0.61)			3.74(0.59)		

것으로 나타났다($F=3.38$, $p=.036$). 대인관계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평균은 좋음이 3.90(0.57)점, 보통이 3.70(0.54)점, 나쁨이 3.59 (0.32)점으로, 사후분석 결과 대상자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4.47$, $p=.012$)[Table 2].

3.3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 행동,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 행동,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진로태도성숙($r=.37$, $p<.001$), 진로준비 행동($r=.22$, $p<.001$), 진로정체감($r=.16$, $p=.009$)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 행동($r=.26$, $p<.0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among Career Identity,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N=265)

Variables	1	2	3	4
	r(ρ)	r(ρ)	r(ρ)	r(ρ)
1 Career Identity	1			
2 Career Attitude Maturity	-.12	1		
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6**	.09	1	
4 Nursing Professionalism	.16*	.37**	.22**	1

* $p<.01$, ** $p<.001$

3.4 대상자의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에서 진로준비 행동이라는 변수가 갖는 매개효과 규명을 위해 Baron & Kenny[15]가 제시한 3단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가 매개변수(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7$, $p<.001$, β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65)

Category	Stage 1	Stage 2	Stage 3	Tolerance	VI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Professionalism		
constant	.85	1.41	1.29		
Career Identity	.34(.27)***	.26(.21)***	.22(.17)**	.91	1.10
Career Attitude Maturity	.14(.12)*	.46(.40)***	.44(.38)***	.97	1.0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5(.14)*	.92	1.09
R ²	.08	.18	.20		
Adj R ²	.08	.18	.19		
F	11.64***	29.44***	22.09***		

* $p<.05$, ** $p<.01$, *** $p<.001$, ()는표준화회귀계수값임

=.12, $p=.039$).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진로태도성숙, 진로정체감)가 종속변수(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40$, $p<.001$, $\beta=.21$, $p<.001$).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진로준비행동이 잘 되어 있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 $p<.013$). 또한 진로태도성숙, 진로정체감과 간호전문직관의 β 값이 3단계에서 각각 .38, .17로 나타나 2단계의 β 값 .40, .21보다 작아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가 있으며,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가 종속변수에 유의하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9%로 나타났다으며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22.09$, $p<.001$). 그리고 주요변수들의 공차한계가 .91 ~ .97로 1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분산팽창인자(VIF)도 1.03 ~ 1.10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고,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그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변인 효과를 입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에서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발적으로 지원한 경우,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에 높

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6,16]. 또 Lim 등[17]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고, 간호학과 선택을 자발적으로 한 경우가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전공의 교과과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내용 구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 발전하는 활동에 힘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Jung 등[18]의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에 대한 적절한 의사소통기술의 습득과 대인관계 능력에 바탕이 된 실무의 적용이 동반되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타인과 감성적으로 교류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함양시킬 필요성이 주어진다.

둘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대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강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진로태도성숙과 직업적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19]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또 진로준비행동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잘 되어 있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정립되어 있다는 결과[20]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정체감과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는 약한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진로정체감 확립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약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11].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질수록 간호전문직관도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정립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11], 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22], 진로태도성숙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학과의 초기 취업률은 높으나 이직률 또한 높아 간호대학생 시기에 진로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24].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실천적 수행과 관계되는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간호에 대한 직업조건과 가치에 대한 관점,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과 간호에 대한 학생의 다양한 인식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 변화된 진로준비행동은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고 간호에 대한 동기와 포부를 심어줌으로 간호를 전문직으로서의 인식하는 데 더욱 영향을 준다[25].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임상경력 5년 이상인 간호사 사이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나[26] 간호대학생 때부터 올바른 간호전문직관 확립이 이루어지면 간호사가 되어서도 높은 간호전문직관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간호사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간호대학생과 신규간호사에게 무엇보다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27]. 이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고 교육을 받는 동안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며 실무경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므로 [28] 간호학생 때 간호전문직관이 올바르게 확립되면 간호사 업무에 대한 가치부여, 간호분야의 전문성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 향후 진로를 준비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이 간호전문

직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천적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이 진로 관련 다른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의 진로준비행동 매개효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요인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경북지역의 간호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 진로준비행동, 간호전문직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태도성숙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준비행동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 1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와 확대해석과 일반화에 있어 제한점을 가지므로, 타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로 취업준비생인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천적 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관련 다른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매개효과를 검증한 반복연구를 통해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A. Seong, E. Y. Yeom, Y.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1, pp. 798-809, 2014.

- [2] Statistics Korea, 2015,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
- [3] Korea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17, <https://kess.kedi.re.kr/index>.
- [4] Keeling, J. Templeman, J., "An exploratory study: student nurses' perceptions of professionalism",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3, No.1, pp. 18-22, 2013.
- [5]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 556-566, 2016.
- [6] H. J. Choi,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Vol.18, No.6, pp. 68-77, 2017.
- [7] I. S. Park, Y. J. Han,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Identity, Stress Management, and Satisfaction for Major Classe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Association, Vol.7, No.1, pp. 145-167, 2017.
- [8] J. Y. Ryu, "On the Academic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with Public Welfare Support in Korea,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Inje University, 2010.
- [9] M. A. Jung, H. S. Kim, E. H. Kim, " (2017). "The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Major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ollege Social Welfare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55, pp. 347-372, 2017.
- [10]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 1091-1100, 2005.
- [11] J. A. Seong, S. Y. Bang, S. Y. Kim,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olistic Health Science, Vol.2, No.2, pp. 29-38, 2012.
- [12] S. J. Kim, S. H.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Ident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3, pp. 1425-1441, 2012.
- [13] K. H. Lee, J. C. Han, "Tools for validating career attitude measurement tools", The Korean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8, No.1, pp. 219-255, 1997.
- [14] B. H.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15] Baron. R. M,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Th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 1173, 1986.
- [16] E. K. Lee, E. J. Ji,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3, No.2, pp. 126-135, 2016.
- [17] K. M. Lim, H. Y. Kim, G. J. Park,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 423-431, 2017.
- [18] K. T. Jung, H. Y. Ha, N. Y. Oh, S. Y. Kim, M. J. Kwon, N. H. Lee, Y. R. Lee, K. H. Yang,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2, No.1, pp. 23-36, 2018.
- [19] K. H. Lee, "Differences Between Four Types of Career Choi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Indecision Fact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11, No.1, pp. 13-21, 2003.
- [20]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 62-71, 2011.
- [21] S. B. Le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Relation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Adaptability of Femal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9, No.2, pp. 49-68, 2016.
- [22] B. H. Kim,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The Korean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3, No.4, pp. 93-111, 2010.
- [23] Y. H. So,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Self-determination Need,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ory Behaviors, and Career Decis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0, No.2, pp. 117-134, 2011.
- [24] I. O. Moon,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 83-91, 2010.
- [25] S. G. Lee, J. K. Lee, "The Difference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First Job of Korean University Student, Depending on Employment Goa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1, No.3, pp. 1-25, 2008.

- [26] Leduc. K, Kotzer. A. ".Bridging the gap: A comparison of th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of students, new graduates, and seasoned professional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30, No.5, pp. 279-284, 2009.
- [27]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 417-426, 2014.
- [28] S. H. Ko, B. Y. Chung,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3, pp. 335-344, 2004.

김 호 춘(Hyo-Chun Kim)

[정회원]



- 2015년 8월 : 대구 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관심분야>

기초간호 및 성인, 노인간호

박 희 숙(Hee-Sook Park)

[정회원]



- 2015년 8월 : 대구 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9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5년 9월 ~ 현재 :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기초 및 성인간호

최 동 숙(Dong-Sook Choi)

[정회원]



- 2015년 8월 : 대구 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7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 기본간호학, 기초간호 및 성인